

책속인물에게 보내는

제6회

# 한글손편지

비읍아 요즘도 너희 엄마께서 아침마다 달걀말이를 해주시니? 난 너희 엄마께서 해주시는 질리지 않는 마법의 달걀말이를 맛보고 싶어. 그 중에서도 잡채 달걀말이 맛이 제일 궁금해~ 그리고 너희 단짝친구 지혜와는 잘 지내고 있지? 지혜와도 만나고 싶어.

휴~~ 너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 할 말이 너~무 많아. 다음에 또 너에게 편지를 쓰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 할게. ^^ 내 이름 잊지 말고 기억해주길 바래. 그럼 안녕~!!

우리가 만날 날을 기약하며...  
2020년 8월 8일  
래원이가 ♡

추신: 비읍아! 나도 너처럼 삐삐의 이름을 다 외웠어! 삐삐로타 델리카테사 원도셰이드 맥크렐 핀트 예프레이츠 도우터 롱스타킹!!!